

작년 가맹점 2곳 중 1곳 편의점·치킨집



지난해에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만1000개 늘어났다는 집계가 나왔다. 가맹점 2곳 중 1곳이 편의점·치킨·한식 프랜차이즈였다.

그러나 출혈 경쟁에 본사 오너일가의 일탈 행위로 타격을 입은 치킨집의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돈벌이도 편의점의 30%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5개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는 18만1000개로 1년 전보다 6.6%(1만1000개) 늘었다.

편의점(4만개), 한식(2만8000개), 치킨집(2만5000개) 등 3대 업종 가맹점 수가 9만3000개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5만3000명)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55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3%(6조9000억 원) 늘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 4900만원으로 7.2% 늘어났다.

편의점(19조3000억원), 한식(8조 원), 치킨집(3조7000억원) 등 3대 업종 가맹점의 매출액이 3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피자·햄버거, 분식·김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편의점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2.8% 증가했고 가맹점당 연 매출액은 4억8700만원이었다.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각각 15.9%, 21.0%로 집계됐다.

피자·햄버거 매출액은 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고 가맹점당 연 매출액은 2억6100만원이다. 가맹점 수(1만1755개)와 종사자 수(5만9788명)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각각 15.4%, 12.0%였다.

분식·김밥의 매출액은 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0% 증가했

다. 7개 업종 중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크다. 그러나 가맹점당 연 매출액은 1억7500만원으로 주점(술집)과 치킨집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분식·김밥의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4.1%, 12.9% 늘어난 1만8556개, 3만8743명이었다.

술집과 치킨집은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는 동반 감소했다.

술집의 경우 매출액이 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으며, 가맹점당 연 매출액은 7개 업종 중 가장 적은 1억4000만원에 그쳤다.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만2026개, 3만296명으로 5.5%, 5.8% 감소했다.

치킨집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1% 늘었고 가맹점당 연 매출액은 술집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억 5000만원이었다.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8%, 3.7% 줄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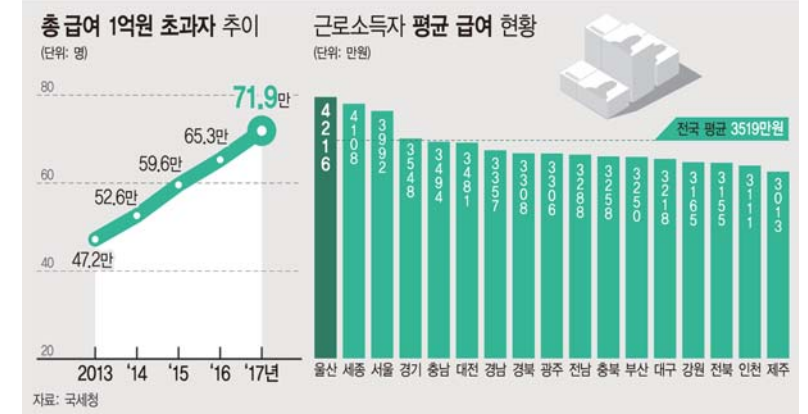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8만8000개로 1년 전보다 2.2%(6만2000개) 늘었고 종사자 수는 1171만4000명으로 2.5%(28만4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의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늘었다.

전체 매출액은 2041조원으로 1년 전보다 7.4%(141조원) 늘었고 사업체당 매출액도 7억1300만원으로 5.1%(3500만원) 커졌다.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5.8%로 11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증가 폭으로 보면 사업체 수는 최근 10년(2007~2017년)간 연평균 증가률(2.1%)을 상회한다.

그러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률인 3.5%, 8.2%를 밑돌았다.



작년 역대 연봉 근로자 71만9000명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가 전년보다 6만8000명 늘어난 71만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올해는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해 총 490개(2017년 44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과세미달자)는 전체의 41.0%(73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연봉 1억원을 넘긴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에 비해 10.1% 늘었다. 연봉 1

2000명(전체의 3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4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명), 필리핀(2만9000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총급여는 14조13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에 비해 4.6% 증가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만2000명이며 일용소득금액은 64조8200억원으로 전년(816만1000명, 62조1000억원)에 비해 각각 0.1%, 4.4%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도 793만원으로 전년(761만원)에 비해 4.2% 확대됐다.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업체 중 건설업이 4조4600원으로 전체의 62.4%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전체의

냉동만두, 국민 1명당 2.3kg 먹는다

생산액 4년새 28.5% ↑

우리 국민 1명당 냉동만두를 연간 2.3kg 먹었다는 집계 나왔다. 냉동만두 생산액은 4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7일 내놓은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냉동만두 생산액은 5194억원이다.

2013년 4042억원보다 생산액이 28.5% 늘어난 것이다.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커진 데다 혼술(혼자 술을 먹음)·홀술(집에서 술을 먹음) 문화 확산으로 냉동만두가 편의식 안주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냉동만두 생산량은 2013년 15만6580t에서 2017년 18만1870t으로 4년 새 16.2% 증가했다.

냉동만두는 날씨가 추워지는 1분기(1~3월)와 4분기(10~12월) 매출이 다른 분기에 비해 높았다.



판매 채널별로는 할인점의 판매 비중이 42%로 가장 컸다. 냉동식품 특성상 냉동전용고가 필요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매유통채널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체인슈퍼 25%, 독립슈퍼 21%, 편의점 6%, 일반식품점 5%, 백화점 1% 순이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만두 소비량은 2.30kg(5.1봉지)이나 됐다. 2012년 1.16kg(2.5봉지)보다 2배 가량 늘었다. 10~40대가 주 소비층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0.1% 더 많이 섭취했다.

배추·무 가격 폭락...20여일 만에 또 격리

배추 1만9000t·무 9000t

정부가 겨울 배추와 무 2만8000t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2만1000t을 시장 격리한 지 20여일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과 26일 두 차례 수급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배추와 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배추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이달 하순까지 출하하는 가을배추가 전년 6만3000t보다 28.6%(1만8000t) 많은 8만1000t 가량 남아있는데다, 월동배추 생산량도 전년보다 5.9% 증가가 예상돼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다.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하순 기준 포기당 1027원으로 전년보다 33.1%나 하락한 상태다.

무의 경우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 출하하는 월동무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3.3% 늘면서 생산량이 6.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 도매가격은 이달 하순

기준 개당 752원으로 전년보다 7.1% 낮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배추 물량은 1만9000t, 무 물량은 9000t이다.

지난 4일 시장 격리된 2만1000t(배추 3000t·무 1만8000t)과 합하면 울겨울 들어서는 5만t에 육박한다.

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8000t을 출하 정지한다.

나머지 9000t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지 폐지하고 2000t은 산지 유통인 자율감축을 통해 출하를 미룬다.

무는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7000t을 시장 격리하고 나머지 2000t은 수출한다.

한파·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수급 불안 발생 시 정부 비축물량 12만5000t(배추 6500t·무 6000t)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17만3000t(월동배추 2만9000t·월동무 14만4000t)을 조기 출하할 방침이다.

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평균 연봉 3519만원, 전년 비 4.7% ↑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중국인'

억원 초과자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서 4.0%를 차지, 전년(3.7%)보다 0.3%포인트 확대됐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에 비해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216만원),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3013만원), 인천(3111만원), 전북(3155만원)은 낮았다.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41.9%로 75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근로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연도별 여성근로자비율은 2013년 39.3%, 2014년 40.0%, 2015년 40.9%, 2016년 41.1% 등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55만8000명 중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만

9.8%), 사업서비스업(7.5%), 도·소매업(5.8%), 음식·숙박업(5.7%) 등의 순이다.

10대 생활밀접업종 창업자 수는 총 47만9000명으로 한식전문점(8만7000명), 통신판매업(7만6000명), 부동산중개업(2만5000명), 옷가게(1만8000명), 커피음료점(1만7000명) 순으로 많이 창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포상금은 총 6876건에 14억 2700만원에 달했다. 발급거부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2709건에 2억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4.4%, 5.6%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169만가구에 1조 2808억원이 지급돼 전년(166만가구, 1조1967억원)보다 가구는 1.8%, 지급액은 7.0%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1600원으로 전년(72만8000원)보다 4.6% 증가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